

##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 - 신체호의 국가사상을 중심으로 -

신연재  
정치외교학과

### I. 버릿말

19세기 후엽의 한국은 내적 모순에 대하여 새로운 정치질서의 수립을, 외적 충격에 대하여 국가의 부강을 요구받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민란으로 통치질서는 더욱 동요되었고, 서구와 일본의 잇달은 도전으로 국가의 자주가 위협받는 다층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런데도 지배층은 주로 전통사회의 복원에서 구국의 방책을 구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교 가치의 재강조, 구질서의 건강 회복을 통하여 기존체제의 유지를 시도하는 대응으로 일관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기존질서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서구 문명을 수용하고, 그리하여 최소한의 체제 개혁으로 내외의 도전에 대응하려는 현상유지의 정책 노선을 추구하고 있었다.

모순과 위기의 원천인 기존질서로는 양대 난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체제의 급격한 개혁을 요구한 것은 일부 지식인들이었다. 구질서는 동요되고 신질서는 도래하지 않은 전환기의 격변 속에서, 구한말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은 외세의 충격과 전통질서의 모순을 극복하고 민족국가를 건설해야 하는 3중 부담을 안게 된다. 기존의 사상과 제도는 이미 이것에 대처하는 데 무기력성과 불감증을 드러냈으므로, 외래 사상과 제도의 도입은 이들에게 불가피한 대안이었다. 팽창 과정에서 드러난 서구의 위세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로 하여금 서구사상의 도입에 적극 나서게 한 주요 동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전통적 역할에 근본적 수정이 가해지는가 하면, 서구식 민족국가가 신체제의 모델로 도입되고 동시에 다양한 서구사상들이 수입되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사회계약론, 민주주의, 사회진화론 등이 그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사회진화론이 서구의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인식되어, 국가간 경쟁과 국민통합의 사상적 원리로 급속히 그리고 널리 수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정치환경의 격변은 사회규범과 지성간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방대하게 구축된 지성사나 정신사의 정립이 필요하다. 지성은 기존 질서의 기본적인 전제들을 문제삼고 그 질서의 총체적 가치를 사고와 비판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보다 바람직한 규범과 목표를 제시하는, 초월과 발전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권력은 본질적으로 보존적이어서 발전을 추구할 경우에도 기존 가치체계 내에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상례이다. 따라서 개화기 한국 지성인들의 인식

과 판단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일제하 민족적 경험의 단절기나 해방 이후 민족적 경험의 분열기에서 한국 지성의 본질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나 지성의 위기가 정신사나 지성사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고 막연히 소신의 문제로 처리된다면, 현실에 대한 지성의 참된 대처가 불가능해지고 단지 막연한 희망이나 울분에 의한 마취에 잠기게 된다. 지성의 방향없는 유랑이나 부질없는 곡예를 예방하기 위해서, 즉 국민과 유리된 지성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성은 지성계 내부의 수평적 공감대는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수직적 공감력을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한말의 지식인들에게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촉구한 계기와 요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파가 이들의 국가사상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연구는 이런 물음들에 해답의 일단이나마 마련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이, 적게는 전통적 국가사상의 변화에, 크게는 근대 한국 지성사의 전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 II. 수용의 계기

19세기의 한국에서 유교적 통치 질서는 여러 면에서 모순을 드러내고 있었다. 1811년의 <홍경래 란> 이후 19세기 중엽까지 크고 작은 규모의 내란이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것들은 바로 봉건질서의 모순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항거이자 개혁의 요구로 해석된다. 게다가 1880년대에 이르러 임오군란, 갑신정변, 갑오경장 등을 통해 위로부터의 개혁 요구까지 제기되기에 이른다. 1890년대에는 갑오농민전쟁, 갑오개혁, 아관파천, 의병전쟁 등으로 이어져 왕조질서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sup>1)</sup> 이렇듯 19세기를 일관하여 위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가 제기됐지만 변화의 추세에 적응하지 못한 집권세력의 대응은 미온적인 것일 뿐이었다. 기존질서의 개혁을 요구하는 세력과 그것을 고수하려는 세력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하였고, 이 결과 조선조의 통치질서는 붕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밖으로는 1876년의 병자수호조약 이후 체결된 각종 개국조약을 계기로 국제정치에 노출되어, 서구적 국제정치질서에 강제 편입되는 사태를 맞는다. 이후 한국은 열강간의 힘의 각축장이 되어 거문도 점령사건, 청일전쟁, 노일전쟁 등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게 된다.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청일전쟁에서 우열을 겨루었고,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 분할을 위요하여 노일전쟁에서 격돌했으며, 영국과 러시아는 거문도 점령 및 용암포 초차 사건으로 어느 일방이 한반도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서로 견제하고 있었다. 거기에 열강의 시장 지배를 위한 경제적 침투, 자원 및 이권 쟁탈전, 그리고 기독교의 포교 등이 가세하여 기존의 왕조질서에 심각한 위기를 불러 일으켰다. 잇달은 외세의 위협은 기존체제의 한계를 노출시킴으로써 개혁 요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내외의 도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었다는 데서 위기의 심각성이 발견된다. 1876년의 개국 이후 외세는 한국의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하여, 어엿한 국내정치 요인으

1. 강재언, 「한국 근대사 연구」 (한울, 1984), pp.117-118.

로 자리잡고 있었다. 갑신정변, 갑오농민전쟁 등에는 어김없이 중국과 일본이 배후 세력으로 존재했으며, 동시에 양국은 조선조의 각종 개혁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1890년대 이후 러시아는 일본과 자웅을 겨루며 한국의 내정에 깊이 개입했고, 서구 열강은 국제정치의 세력균형과 이권 획득을 위하여 개입함으로써 그들간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서 복잡하게 교차하게 된다. 심지어 개화파와 정부는 각각의 개혁정책을 놓고 외세와 결탁하는가 하면 관련을 맺고 있었다. 내외 요인의 결부로 도전이 거세지면서 기존체제의 각종 모순이 노출되는 것과 함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자주와 부강이 위 아래 구별없이 누구에게나 중요한 목표가 되었거니와, 당연히 그것을 위한 개혁 요구가 증폭될 수 밖에 없었다. 18세기 초 이래 제기된 개혁 요구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었는데,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었고, 다른 하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집권 세력은 대체로 대중의 능력을 부인하던 터여서,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는 거부되거나 무시된다. 이렇게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 갑오농민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여겨지거니와, 갑신정변의 경우 대중이 성숙되기도 전에 또는 대중의 참여를 배제한 채 정변을 일으킨 것이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독립협회의 경우, 대중을 우매한 존재로만 파악한 결과 이들의 개혁 주도 능력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2)</sup> 그들에게 대중은 새로운 지식의 습득은 물론 시세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로만 여겨졌다. 따라서 대중을 배제하고 나면, 일단 개혁의 주도적 역할이 지식인과 집권 세력에 의하여 독점되는 결과를 빚게 된다.

그러나 이들 내부에서도 사정이 간단치는 않아서 위기의 원인과 처방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 때문에 이들은 보수파, 급진파, 절충파로 분열되었다. 보수파는 衛正斥邪派로 대변되는 바, 이들은 위기의 원인이 유교사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적용이 잘못된 데 있으므로, 정통 유교로 회귀하여 전통질서를 고수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린다. 이들의 사상은 이른바 <華夷論>에 입각한 것이었으므로, 서구 및 일본이 몰고 온 충격의 효과를 일체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하여 이들은 철저하게 반외세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전통질서의 고수에 집착함으로써 봉건제의 개혁을 외면하는 한계에 직면한다. 급진파 즉 개화파의 경우, 위기의 원인이 전통질서에 있다고 간주하고 해결책을 서구에서 구한다. 서구를 개혁의 모델로 설정한 후 이들은 서구의 과학기술은 물론 제도와 사상까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 점에서 이들은 반외세에는 한계를 보이거나 봉건제의 개혁에는 철저한 편이어서 한국의 변법파라고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절충파는 주로 중국의 <中體西用>론과 유사한 <東道西器>론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구한 집권세력이었다. 이들은 전통적 지배질서와 이해관계를 유지한 채 부국강병을 추구함으로써 반외세와 반봉건에 미온적 입장을 취했다.

세 파 가운데 가장 급진적 부류였던 개화파의 개혁운동이 집권세력 및 외세의 간섭으로 끝나자 1880년대의 개혁운동은 소강 상태를 맞는다. 그러나 통치질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청일전쟁, 을미사변, 아관파천 등으로 침투가 강화되자, 이어져 내려 온 개화파의 인맥이 자주독립의 수호를 우선 과제로 내세워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를 설립한 바 있다. 이들은 과거의 개화파가 걸어왔던 대중성-민중과의 연대-과 자주성-외세와의 단절-을 확보

2.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사회진화론을 중심으로," 『한국근대사 연구회회보』, 1 (1987.6)

하면서 국권회복 및 개혁운동을 전개했으나, 일본의 압력과 정부의 억압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독립협회의 맥을 이어 개혁운동을 전개한 것이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이것은 정부 및 외세의 압력을 의식하여 그 주조를 문화계몽운동에 두었으나, 동시에 관심의 초점을 정치의 개혁과 국가의 수호에도 맞추고 있었다.

개화파의 특징은 통치질서의 문란과 부국강병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가 아닌 사상의 실패에서 기인된다고 파악한 점이였다. 설사 부국강병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도, 전면적인 개혁이 아닌 부분적 비온적 개혁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국강병책을, 나아가서 자주독립의 수호와 회복을 가능하게 해 줄 모델을 서구에서 구했다. 이들에게는 현재의 열등성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미래의 극복책을 제시해 줄 해답이 필요했고, 이런 요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 준 것이 사회진화론이었다. 그것은 현재의 열등성이 생존경쟁에 대비하지 않은 탓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변화된 현실을 직시하도록 한편, 다른 한편으로 진화적 생존경쟁의 과정에는 진보의 경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함으로써 위안을 안겨주는 것이였다.

내외의 압력을 받고 있던 상황의 절박성이 사회진화론의 수용을 재촉한 점은 중국, 일본, 한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다만 한국과 중국은 서구 외에도 일본의 팽창 압력에 대처해야만 하는 추가 부담을 안고 있었다.<sup>3)</sup> 한국의 경우, 일본의 1차적 팽창 대상이어서, 중국보다 더 큰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 결과 과거의 事大交隣 질서에서 맞보지 못했던 긴장감을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맞보게 된다. 이런 변화 자체가 기왕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파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니와, 과거에 그것을 떠받쳤던 <禮> 관념이 긴장과 대립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더 이상 작동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것이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은 서구와 일본의 침투로 국기가 흔들렸고, 그럴수록 부국강병을 통한 자주 수호가 절실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진화론이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미래의 대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서구사상으로 간주되었다. 즉, 생존경쟁에서 부적자로 전락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다는 것, 따라서 부국강병을 이루면 적자 대열에 올라서서 국가의 자주와 번영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였다. 사회진화론의 이런 설명은 내외의 도전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려는 민족주의의 정서에 적절히 부합되는 것이였다.

### III. 수용 과정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은 일본 및 중국을 통한 간접적 수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어떤 경로로 수용하던 여건의 상이와 수용 세력의 상이가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1차 수용국의 해석을 그대로 답습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고 사상의 難厝性도 피할 길이 없었다.<sup>4)</sup> 대체로 한국의 사회진화론 수입원은 1880년 대에는 일본, 1890년대 이후

3. 일본의 제국주의가 한국 및 중국의 근대국가 건설을 저해했다는 와타누키의 지적은 이 점과 맞물리는 것이다. Joji Watanuki, "State Formation and Nation Building in East Asia,"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XXIII, No.3 (1971), p.431.

4. 정명환은 이광수의 예를 들어 사상의 추수성과 잠거성을 설명하고 있다. 정명환, "이광수의 계몽 사상,"

로는 중국이었다. 특히 유학자들은 시기에 관계없이 주로 중국의 저작들을 통해 사회진화론을 수입한 특징을 보여준다.<sup>5)</sup> 그런데 일본에 진화론이 최초로 소개된 것은 森胤保가 생물 진화에 관한 『求理事言』을 펴낸 1875년이였다. 스펜서(Spencer), 루소, 기조(Guizot), 스마인즈(Smiles), 버클(Buckle), 토크빌, 헤겔 등 근대 서구의 대표적 사상가들이 1870년대의 일본에 이미 소개된 바 있었다.<sup>6)</sup> 이들중 일부의 영향으로 1870년대 중엽부터 일본의 선구적 사상가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진화론적 유물론(evolutionary materialism)이 널리 유포되었다. 그것은 자연과 인간이 모두 기계적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는 근거 위에서 도덕적 원리의 존재를 일체 부정하는 것이었다. 이어 1877년에는 外山正一이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을 소개하여 일본의 사상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7)</sup>

진화론은 일찍부터 선교사 및 외국인 교사들에 의해 일본에 소개됐지만, 일본이 본격적으로 진화론을 수용한 것은 1880년대 초엽 이후의 일이었다. 특히 1877년에 모오스(Morse)가 행한 일련의 강연은 진화론적 유물론의 선봉을 불러 일으켜 진화론 수용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거기에 페놀로사(Fenollosa)가 스펜서의 진화론을 소개함으로써 사회진화론의 확산을 더욱 촉진했는데, 石川千代松은 모오스의 강의를 정리하여 『動物進化論』(1883)으로 번역·발간하였다. 그런데 구미에서는 생물학적 진화론이나 사회학적 진화론이 모두 논란의 대상이었으나, 정작 일본에서는 생존경쟁과 자연도태가 優勝劣敗와 적자생존으로 환치되어 최선의 과학적 진리이자 비판의 여지가 없는 기본원리로 통용되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진화론 관계 서적이 활발히 간행되었던 바, 생물학적 진화론보다는 사회학적 진화론이 더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있었다. 일본에 진화론이 소개된지 20여년이 경과한 후에야 立花銑三郎에 의하여 『種의 起源』이 『生物始源 또는 種源論』으로 번역된 사실이 이런 경향을 극명하게 입증한다.<sup>8)</sup> 물론 다윈(Darwin)과 헉슬리(Huxley)의 진화론도 환영받았으나 적자생존이 우승열패로 간주되어 정치논쟁에 흔히 원용된 것에서 보듯이, 순수히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학적 진화론의 형태로 수용되었다. 진화론을 이해하고 수용할 만한 과학적 토대를 구축하지 못했던 탓이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환기의 절박했던 정치환경이 새로운 시각을 요구한 탓이었다.

공간된 서적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 최초의 진화론 수용은 유길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1880년대 초의 일본 및 미국 유학 시절에 후쿠자와 및 모오스로부터 각각 진화론을 전수받아, 1895년에 발간한 『西遊見聞』에 그 내용을 담았다. 물론 중국 최초의 진화론 관계 서적인 嚴復의 『天演論』이나 일본 최초의 것인 石川千代松의 『動物進化論』과 비교해 보면 이해 수준에서 상당한 격차를 보여주는 것이기는 하다. 그런데 유길준을 한국 최초의 진화론 수용자로 평가하기에는 그의 진화론에 관한 조예가 그리 깊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즉, 그가 『시유견문』에서 세계적 생물학자로 소개한 5인-홀볼트, 퀴미어, 헉슬리, 모오스, 하이아트-중 생물학적 진화론자는 모오스뿐이고 정통 진화론자

「문학과 지성」, 4-1 (1973 봄), p.135.

5.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 『한국 개화사상 연구』 (일조각, 1979), p.260.

6. R. P. Dore, "Japan as a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rchivives Europeenes de Sociologie*, Vol.5, No.1 (1964), pp.143-144.

7. Umaji, "A Survey of Philosophy in Japan, 1870-1929," Nitobe et al. (eds.), *Western Influences in Modern Japan*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4), p.60.

8. 渡邊正雄, 『日本人と近代科學：西洋への對應と課題』 (岩波書店, 1976), p.199.

인 다윈과 라마르크가 빠졌으며 나아가서 진화론의 선구자에 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는 단지 직선적 발전 과정과 경쟁 개념 정도를 이해했을 따름이라는 것이다.<sup>9)</sup>

그러나 퀴비에의 <天變地異說>을 근거로 다윈류의 진화론에 반대함으로써 진화론의 성장 과정에 간접적이긴 하나 중대한 관련을 맺은 생물학자이며, 헉슬리는 다윈이즘의 충실한 추종자였다는 점을 들어 그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논자도 있다.<sup>10)</sup> 더구나 『서유견문』에서는 인류의 진보 과정을 미개, 반개화, 개화라고 하면서 직선적 진보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sup>11)</sup> 이는 스펜서류의 목적론적 진보 관념에 배치되기는 커녕 부합되는 것이다. 나아가서 그는 『서유견문』에서 ““고급의 인간 관계는 競勵로 시종했으며 “사회적 경쟁은 인간 사회에 이익을 초래하고 “나라의 부강은 국민들의 경쟁에 달려 있다”고 하여 경쟁이 인간사회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일깨웠다. 또 『경쟁론』에서는 ““인생만사가 경쟁에 의존하니 “만일 경쟁이 없으면 무엇으로 智德과 행복을 “光威와 부강을 증진하겠느냐”고<sup>12)</sup> 반문하고 있어서, 그를 최초의 수용자로 평가할 만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문제삼아야 할 것은 진화론을 이해한 정도가 아니라 접촉한 시기이다. 유길준과 비슷한 시기에 일본 및 미국으로 유학한 이들이 있어서, 이들이 유길준보다 앞서서 진화론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영효의 경우, 『建邦書』(1888)에서 ““세계 정세는 약육강식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국에 公法이나 公議가 있어도 자립자존의 힘이 없으면 국가를 보존할 수 없다”고 하여 사회진화론으로부터 영향받은 흔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김옥균의 경우, 1882년 초에 일본을 방문하여 후쿠자와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로부터 진화론에 관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1881년에 일본으로 그리고 1885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1895년에 귀국한 윤치호에게서는 직간접으로 진화론과 접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일본과 접촉이 잦았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나 일본 유학생들에게서도 그런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sup>13)</sup>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서양 선교사들이 서양사를 교육하는 과정에서 진화론을 소개했을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895년이 한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사에서 분수령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이해에 유길준의 『서유견문』이 발간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94년의 <갑오경장>을 계기로 유교적 가치관이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동학혁명, 을미사변, 청일전쟁 등으로 인하여 내외의 정세가 위기 국면으로 치달는 상황 속에서 사회진화론이 활발히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사회진화론에 관한 다수의 글의 발표되는데, 독립협회는 그것의 영향을 반영하여 제국주의를 생존경쟁의 표본으로 합리화하기도 했다. 독립신문에 게재된 어떤 글은 역사를 생활 유지와 종족 보호의 과정이라고 또한 경쟁도 종족보호를 위한 것

9. 박상윤, 「진화」, (전과과학사, 1984), pp.232-233.

10. 정용재, 「찰스 다윈」, (민음사, 1988), pp.188-189.

11. 유길준에 의하면 개화란, “인간의 千事萬物이 至善至極한 경역에 抵하는 것”이다. 유길준, <서유견문>, 「유길준전서」, 1권, p.375.

12. 유길준, <정치경제편>, 「유길준전서」, 4권.

13. 김영모, “한말 의대문화의 수용 계층-개화기 유학생의 실대,” 3-1 (1972 봄). 구한말의 관료로서 해외 유학 시절 견학한 자가 171명이며, 1895년 한 해에만 유학생-관료,비관료 포함-이 182명이나 된다. 유학 대상국은 대부분 일본이었다.

이라고 규정했다.<sup>14)</sup>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897년 초 『독립협회보』에 自強을 위하여 전면적 變法을 주장한 梁啓超의 『戊戌政變記』가 소개됐다는 사실이다. 이후 일본 망명 시절의 『清議報』 및 『新民叢報』 그리고 『飲氷室文集』이 속속 입수되어 널리 읽혀졌다. 아마도 그 이유는 중국 정부의 부패와 그 개선책을 서슴없이 제시한 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서 구국을 위한 自強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이었다.<sup>15)</sup> 그리하여 황성신문(1899. 1. 3)은 『청의보』 창간 소식과 함께 양계초 개인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으며, 묵암(默菴) 李鍾一은 『음빙실문집』을 <개화서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16)</sup> 1900년대에도 양계초의 글이 널리 보급되어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의 사상에 깊숙히 침투해 들어 갔는데, 黃玹은 양계초의 주장에 공감하여 그를 천재적 인물이라고 추켜세울 정도였다.

1898년, 민권의식을 고취하던 독립협회가 정부의 탄압으로 해산되자, 대중의 정치에 대한 열기가 급격히 식어 대중적 정치운동도 퇴조하게 된다. 이후 개혁운동은 문화계몽 위주의 운동으로 존재를 유지하다가, 1905년 노일전쟁과 을사조약에 자극받아 전국적인 애국계몽운동으로 확산된다.<sup>17)</sup> 이때부터 1910년까지 수많은 단체·학회, 학교, 협회 등-들이 조직되어 이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이로써 애국계몽운동이 절정에 달하는데, 이는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이 국권 회복의 차원에서 단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대내적인 면에서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고양하고, 대외적인 면에서는 민족주의의 활성화와 제국주의에의 대처를 역설하는 데 사회진화론을 흔히 원용하고 있었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하면, 이 시기의 애국계몽운동이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를, 富民보다는 富國強兵을, 공화제보다는 입헌군주제를 선호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권력과 지성의 분열로 말미암아, 지식인 중심의 애국계몽운동은 문화운동 내지는 사회운동 차원에서 전개되었을 뿐 국가의 정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들어와서 각종 신문과 학보들이 양계초의 저작들을 더욱 활발히 소개하는가 하면, 단행본으로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洪弼周는 『變法通議序』에서 그의 저서가 기타 서양서보다 한국에 적합하며, 李沂는 『정치학』에서 동서양 명가의 정치학 저서가 여럿 있지만 양계초의 것이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심지어 일본 유학생 최석하는 양계초의 <중국론>에 감명받아 <조선론>을 제창하고 있다.<sup>18)</sup> 1908년에 그의 저술들을 집대성한 『음빙실문집』을 金恒基가 『飲氷室自由書』로 번역한 것만 보더라도, 양계초가 조선조 말 지성계 및 개혁사상에 미친 영향을 재확인할 수 있다. 양계초의 영향은 신채호와 박은식에게도 어김없이 파급되었는데, 특히 신채호의 경우 그의 국가사상은 양계초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어서 양계초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을 짐작케 한다. 한무회는 이 점에 주목하여 양자의 유사성을 강조하는데,<sup>19)</sup> 첫째, 역사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한 점, 둘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를 강조하되 전자로 후자에 대항한 점, 셋째, 우승열패 적자생존의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점, 넷째, 민족사관을 강조한 점, 다섯째 노예성

14. 독립신문, 건양원년(1896), 7월 4일.

15. 엽건곤, 「양계초와 구한말 문학」, (법전출판사, 1980), p.117.

16. 묵암 이종일, 「비망록」, 「한국사상」, 16집, p.344.

17. 안병직, 「19세기 말 - 20세기 초의 사회경제와 민족운동」, 「창작과 비평」, 8-4 (1973 겨울), p.1124.

18. 「태국학보」, 5호 (1906)

19. 한무회, 「단체와 임공의 문학과 사상」, (에그린출판사, 1977), pp.5-9.

및 사대사상을 배격하고 주체성을 역설한 짐 등이다. 이에 근거하여 신채호는 박은식과 함께 근대 사학을 정립한 사학자로 평가되고, 박은식이 유교적 기초 위에서 근대사회의 형성을 촉구했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과거의 문화나 전통을 비판하면서도, 그것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sup>20</sup> 이로 미루어 유교가 결코 사회진화론 수용의 저지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지만, 변용요인으로 작용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사회진화론이 애국계몽운동에 미친 영향을 입증하는 데, 흔히 학생이 지었다는 <광화학교>의 <송축가>를 예로 들고 있다.<sup>21</sup> 이 송축가는 현재의 세계에서 우승열패와 생존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 시대의 애국계몽운동이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의 세계에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은 집진론과 준비론에 함몰되어, 당장의 생존경쟁에서 적자성을 입증하기보다는, 현재의 부적자성-또는 열자성, 패자성-을 인정하고 뒷날의 생존경쟁에서 적자로 부상하기 위한 실력 양성에 몰두했다. 몰산장려, 식산홍업, 사립학교 개선 등은 모두 애국계몽운동의 이런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진화론이 관련 학문의 미성숙으로 인하여 체계적 여과를 거치지 못했던 데다가, 주로 저널리즘을 통해 수입됐기 때문에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매우 천박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한편 19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이르면, 드디어 생물학적 진화론이 수용되기 시작하여, 이상룡의 『진화집설』에서는 『종의기원』을 읽은 흔적이 역연하다.<sup>22</sup> 그런가 하면 다윈류의 진화론과 과학주의가 계속 보급되어, <민족지>의 사실들이 <과학주의>의 중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더욱이 1910년 이후로는 일제의 탄압으로 발미암아 애국계몽운동은 문화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게 되며, 이점이 일제하의 계몽주의자 또는 문화주의자-이광수, 안창호, 한용운 등-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IV. 수용의 영향

### 1.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

조선조 말기, 전통질서를 분신하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게 다양한 서구사조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특히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가 서구 부강의 원동력으로 주목받았다. 문제는, 두 수입사상의 시각에서 보자면 진보의 필수 요인인 진화적 경쟁과 자유가 한국의 역사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전통질시에만 의존해서는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식인들이, 그것에 대한 비판에 나서면서 자유와 경쟁력을 갖춘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시도했다. 신채호는 자유주의가 유럽의 산물임을 전제한 후 영국과 불란서의 혁명이, 미국의 독립과 독일의 강상이, 벨기에의 자립과 이태리의 통일이, 그리고 남미제국의 자주가 모두 자유주의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sup>23</sup> 말하자면 그는 자유주의가

20. 梶村秀樹, "申采浩の歴史學-近代朝鮮史論ノト," 『思想』 (1969.3); 김철준, "한국사학의 체문제," 『문화과 지성』, 1-1 (1970 가을), p.77; 김영호, "역사인식의 두 조류," 『문화과 지성』, 8-2 (1977 여름).

21. 『대한매일신보』 (1906. 12. 15)

22. 정용재, 앞의 책, pp.190-191.



시구의 자주와 번영의 기반임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는 자유에 대한 평등의 수단적 가치에도 주목했다. 즉, 인류는 인격과 인권이 평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사이에는 상하의 관념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의 역사에는 그런 자유와 평등이 존재한 적이 없어서 국민들은 사회적으로 세력가의 노예가 되며, 정신적으로는 사상계의 노예가 되며, 정치적으로는 현상계의 노예가 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사상과 자유생활을 발전시키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 결과로 대두된 세가지 폐단을 구체적으로 밝힌다.<sup>24)</sup> 첫째, 중간자는 상위자에게 하위자는 중간자의 노예라는 것, 둘째, 中古人的 사상은 上古人的 그것에 노예가 되었고, 今人的 사상은 중고인의 그것에 노예가 됐다는 것, 셋째, 현상계의 노예가 되어 고식을 당연시하고 치욕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생명을 보전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자유 부재의 원인이 주로 군주제에 있다고 간주하여 전제군주제를 집중 검토했다. 그에 의하면, 한국이 제국주의의 침탈로 국가 주권을 상실하고 국민이 노예로 전락하게 된 것도 애국심의 결여 때문이었다.<sup>25)</sup> 국민이 애국심을 갖지 못한 이유는 국가가 소수 지배세력의 이해에만 봉사하는 존재로 이해한 것에서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國事, 國權, 국가의 영광과 치욕이 모두 군주와 재상에게만 관계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리하여 국민이 노예의 타성에 빠져들어 국사를 방관한 것이, 결국 제국주의적 팽창의 노리개로 전락하게 된 궁극적 원인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를 개인의 것으로, 자신을 노예로 간주하게 된 원인은 국민이 아닌 전제군주제에 있다는 것이 또한 그의 진단이었다. 즉, 전제정치 하에서 소수의 지배세력이 국정을 전담하고 국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애국심이 결여될 수 밖에 없었고, 이 결과로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자유 부재에서 빚어지는 이런 폐단에 비추어 보면, 전제정치 하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나 국가의 자주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개혁지향적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정치체제의 변혁을 구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정치체제의 변혁은 근대 민족국가의 수립을 지향하는 것이었으며, 그 핵심은 자유와 평등 및 부국강병의 실현이었다.<sup>26)</sup> 그럴수록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등장하는데, 신채호는 한국이 국란의 위기에 처하게 된 제1 원인이 불평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氏族, 官民, 嫡庶, 士農工商, 男女 사이의 불평등한 계급의식을 버려야하고, 그래야만 <국리민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7)</sup> 그는 또한 자유는 인간의 제2 생명이라고 규정짓고, 인격이 있어야 인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유를 상실한 자는 인격이 없어져 금수나 목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구체제 하에서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 불가능한 한, 그리고 국가간 경쟁의 원동력이 국민 전체에 있다고 여겨지는 한, 자유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한 신체제의 건설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는 신체제를 향한 제1보로 <신국민>의 형성을 주장했다. 그는 과거의

23. 신채호, <20세기 신국민>, 「단재 신채호 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77), p.213.

24. 신채호, <20세기 신국민>, 「단재 신채호 전집」, 별집 (형설출판사, 1977), p.215.

25. <애국론>, 「서우」, 제2호, p.24 ; 원영의, <정치의 진화>, 「대한협회회보」, 5, p.25.

26. 양재혁, 「시구 문화의 영향과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신채호의 신국민론」, 「동양신학자료집」, p.123.

27. <신국민>, 「전집」, 별집, p.213.

인습에서 벗어난 후 도덕, 무력, 경제, 교육, 정치, 종교의 면에서 신국민이 구비해야 할 자격을 설명하고 있다. 도덕 중에서 그가 가장 중시한 것은 평등, 자유, 정의, 毅勇, 공공심이였다. 한편으로 그는 정치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것 없이는 세계의 변화 추세를 직시하거나 문명의 진보를 흡수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한국인에게는 정치능력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그는 극에 달한 전제의 늪, 경제적 빈곤, 지적 무지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치능력의 결여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전제군주제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에 그는 전국민이 분발하여 신국민의 요건인 정치능력을 배양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배경 아래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참정권 또는 선거권을 부여하되, 우선 지방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전국적인 의회제도 설치에 대비해야 한다는<sup>28)</sup> 주장이 나오게 된다.

전체 국민은 일단 이런 전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신국민>이 될 수 있었다. 즉, 그가 소위 신국민에게 요구한 것은 서구 근대사에 작동했던 시민정신이였다. 시민정신에 기초하여 신국민이 구성되며, 이 결과 과거의 국민과 체제는 소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국민의 요구는, 국가의 목표에 부합될 수 있는 신체제의 건설을 요구했으며, 거기에는 입헌군주제와 입헌공화제가 경쟁하고 있었다. 공화제를 요구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으나, 시대의 조류는 대체로 입헌군주제를 지지하고 있었다. 애국계몽운동기에는 두 가지 국가사상이 엄밀한 구분도 없이 소개되고 있었다.<sup>29)</sup> 하나는 보댕, 홉스, 로크, 루소 계열의 자연법적 국가론이었고 다른 하나는 엘리네크, 블룬츨리 계열의 국가유기체론이였다. 그런데 이 두 사상은 속성상 상반되는 것이어서 전자는 국가를 인간 자유의지의 산물로 파악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데 반하여, 후자는 유기체적 총체로서의 국가를 중시하는 것이였다. 당시 지성계의 동향은 대체로 후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던 바, 입헌군주제는 국가유기체론의 연장선상에서 대세를 장악할 수 있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하여 설사 자연법적 국가론을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홉스 및 보댕 계열의 절대군주론이나 군주주권론의 형태를 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자연법적 국가론이 국가유기체론이나 군주주권론의 지지 명분으로 작용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서구사상의 수용 과정에서 유교에 대한 부분적 비판은 있었으나 근본적 부정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결과 수입사상은 유교 원리와의 조화를 시도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거꾸로 유교 원리에 비추어 그것을 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되었다.<sup>30)</sup> 둘째 유교적 통치질서는 그 기반을 가부장제에 두고 있었다. 따라서 가부장에 대한 <孝>가 군주에 대한 <忠>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 국가유기체론과 입헌군주제의 결합 또한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그 과정에 사회진화론의 작용이 있었다. 본래 스펜서류의 사회진화론은 개인주의를 합리화하는 데 주조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 일부인 사회유기체론을 분리하여 사회의

28. 윤효정, <지방자치제도론>, 「대한자강회원보」, 4, pp.18-19.

29. 김도형, 앞의 논문, pp.113-114.

30. 신재호와 박은식의 유교개혁론, 儒敎求新論 조차도 그러한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도형, “합말 계몽운동의 정치론 연구,” 「한국사연구」, 54 (1986. 9), pp.98-107. 종교가 진화론의 수용을 지해한 예로 이슬람 문화권을 들 수 있다. 이슬람교의 종교적 교의에 조금이라도 상충되는 사상은 반대에 부딪혔는데, 특히 진화론의 경우 기독교의 이단으로 간주된 탓에 일부 종교계 인사, 개혁주의자들 이외에는 널리 전파될 수 없었다. Najm A. Bezirgan, “Islamic World,” in Thomas F. Glick(ed.), *Comparative Reception of Darwinism* (Austin: Univ. of Texas Press, 1972), pp. 375-387.

개인에 대한 존재론적 우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용하면 개인은 국가의 하부단위로 예측될 수 밖에 없었다. 사상의 굴절 수용을 통하여 군주의 우위를 전제로 한 입헌군주제를 합리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애국계몽운동이 개혁운동의 민중배제적 성격을 계승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은 전제정치의 산물인 국민의 정치적 무지와 지적 무지를 결과론적인 입장에서만 파악함으로써 민중의 정치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 이런 인식이 군주의 우월과 국민의 요구를 조화시킨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공화제는 국민이 정치지식을 보유한 다음에나 가능한 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사정은, 애국계몽운동가들이 요구한 자유가 국가에 대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자유임을, 국가를 향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임을, 그리하여 그것이 소극적 자유였음을 말해준다. 사회진화론에 영향받은 애국계몽사상가라면 누구나 부국강병의 궁극적 원천과 목표를 개인에게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가목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의 영향으로, 그들은 개인을 국가에 종속시켰다. 그리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논리상 국가의 생존과 국권 회복에 기여하는 범주 내에서만 유효한 것이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증진시키려 한 점에서 입헌군주제는 전제군주제보다 진일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주의의 성격과 범위를 자유주의가 아닌 민족주의가 규정토록 한 것이 사회진화론과 자유주의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애국계몽사상의 특색이자 한계이다. 물론 토착 전통에서 진보적 요인을 발굴하여 새로운 또는 외래의 요인과 결부시켜, 발전을 추구하는 현상은 과도기 사회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오히려 이 점에서 동아시아 3국 중 일본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지식인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었던 것이, 家族國家 관념으로 입증된다.

중국의 경우, 이와 유사한 상태에서 구한말 지성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이 점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예는 신채호이러라고 여겨진다. 과거의 문화 전통에 대하여 가장 신랄한 비판을 펴부었던 그가, 유림의 비중이 크고 유교의 풍속과 관습이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로 국민과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유교의 개혁을 요구할 뿐 그것의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이런 조류에 맞추어, 입헌은 文明富強의 主物이고 문명부강은 입헌의 從物이어서 입헌사상이 결여된 국가는 독립을 유지할 수 없으며, 추락된 국권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단정한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편, 입헌군주제의 모델이 서구의 것임을 분명히 하고, 강국은 서양 정치제도의 수입과 체제의 정비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런가 하면, 신채호는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입헌공화제를 주장했다. 그는 서구 부강의 비밀이 개인의 자율성에 있으며, 그것이 입헌공화제로 만개되었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그는 한국민도 자유와 민족정신을 개발하여 적극적 정치의식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입헌공화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부류의 입헌군주론 또는 입헌공화론이 거시정치이론이었다면, 미시정치이론의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채호는 국가의 흥망성쇠는 국민의 자치력에 달려 있다는 전제 아래, 고대의 한국에는 자치가 있었으나 유불교의 尊君主義가 중세 이후로 국민자치사상을 유실시켰다고 하면서, 시민자치의 부활을 요구했다. 김성희는 지방자치제도가 현 세계문명국의 정치를 진보시킨 도구라는 인식으로 그 필요성을 부각시켰다.<sup>31)</sup> 그리하여 입헌군주제의 달성은 국민의 정치참여로 가능하며, 이 참정사상은 국민이 자치의 책임을

다하고 각 지방의 공익을 도모하는 태도로부터 유래한다는 인식이 전파되어 갔다.

## 2. 사회진화론과 민족주의

한국의 사회진화론 수용이 위기 대응용이었다는 점은, 중국 및 일본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시구의 충격과 통치질서의 동요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일본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된 결과 양국보다 더 위협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일본의 직접적이며 우선적인 침략 대상이 한국이었다는 점은 중국보다 더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조 말기의 한국은 반봉건 반제의 과업을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반봉건과 반제는 기존 체제의 모순으로부터 산출된 것이었으므로 기존체제의 개혁이 당연히 요구되었고, 이 과정에 사회진화론이 개혁의 명분으로 개입했다. 사회진화론은 국제정치의 운영 원리가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임을, 그리하여 기존체제는 반봉건과 반제의 체결에 부적합한 것임을 알려 주는 것이었다. 나아가서 그것은 생존경쟁과 적자생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부국강병이 필요함을, 부국강병은 근대 민족국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조선조 말기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한 동기는 주로 이런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사회진화론을 수용하여 내적 대응보다 외적 대응에 주력했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말하자면 외적 충격이 더 큰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켜 외적 저항의 필요를 일깨운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은 내적으로 국민통합의 필요를 강조하면서 대외저항에 나선다. 이 경우 문제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대외저항의 필요에 따라 국민통합을 서두르느라 봉건 세력까지도 민족주의적 저항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다. 이 결과 봉건적 잔재의 청산이 불철저하게 되었다.<sup>32)</sup> 다른 하나는 외적 대응에 주력하면서도, 외적 충격의 원인을 내부의 모순에서 찾은 점이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내정의 개혁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외적 대응을 위한 것이었을 뿐 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에서 근대 한국 민족주의의 속성을 지향 민족주의로 규정짓거나와, 동시에 그것은 半封建的인 것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대외적 저항의 필요는 外競을, 대내적 통합의 필요는 內競의 중지를 요구했다. 사회진화론의 진가는 여기서 발휘되었는데 내적으로는 국가유기체 사상, 외적으로는 경쟁과 적자생존의 사상으로 진용을 재정비하게 된다. 신채호의 초기 사상에서는 이것이 <정신상 국가>(추상적 국가)와 <형식상 국가>(구체적 국가)의 두 형태로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정신상 국가는 민족의 독립정신, 자유정신, 생존정신, 국위선양 정신, 國光 발휘 정신 등으로 상징되는 존재였다. 그리고 형식상 국가는 강토, 주권, 대포, 육군, 해군 등으로 구성된 집합체였다.<sup>33)</sup> 그의 이러한 국가 유형 분류는 국가유기체론 계열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서, 특히 블룬츨리의 견해를 따르자면 국가에는 영혼과 육신 그리고 의지와 행동조직이 필수적으로 하나의 생명체 내에 함께 묶여 있는 것이었다.<sup>34)</sup> 이러한 견해를 대입할

31. 신채호, <한국자치제의 역사>, 「전집」, 중, pp.127-129 ; 김성희, <지방자치제도속편>, 「夜雷」.

32. 노재봉, 「현대 한국의 정치사상에 있어서의 방법의 문제」, 노재봉, 「사상과 실천」(낙두, 1985), p.281.

33. 신채호, <정신상 국가>, 「전집」, 별집, p.160.

34. Bluntschli, *Theory of the State* (London : Oxford Univ. Press, 1901), p.19.

경우, 신채호가 말하는 정신상 국가는 자강의 민족정신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불분출리의 영혼과 의지에 해당되는 것이고, 형식상 국가는 국가의 요소로 간주되는 것들로서 육신과 행동조직에 해당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대외경쟁력을 갖추어 경쟁적 국제정치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통합이 우선적으로 요구됐으므로, 위기 상황에서는 형식상 국가보다 정신상 국가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정신상 국가는 민족정신으로 무장된 유기체로서 형식상 국가의 어머니이며, 전자가 망하면 후자가 망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국가는 망한 것이다. 정신상 국가가 망하지 않았으면 형식상 국가가 망했을지라도 그 국가는 망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망국의 위기에 처해서 구국의 수단이라고는 가진 것이 없는 지식인이, 국민의 의지에 기대를 건, 마지막 안간 힘이었으리라고 여겨진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논리는, 한국의 형식상 국가가 일본에 의하여 쇠망해가고 있지만 정신상 국가만큼은 보존함으로써 국가의 생존을 확보할 수 있다는 희망의 반영이었다.

국가유기체론으로 일단 국민통합의 필요를 제기한 그는, 국제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형식상 국가의 필요를 제기한다. 이 국가는 국민, 주권, 국토의 세 요소로 구성되며 한 민족이 소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으로써 그것이 일민족 일국가형의 근대 민족국가임을, 그리하여 인국을 朝廷으로 그리고 민족을 一姓一家로 오인하는 한국의 전통적 국가와는 다른 존재임을 밝혀준다.<sup>35)</sup> 그에 의하면 이러한 국가야말로 국제사회의 여러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고, 생존할 수도 있는 진정한 국가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일가족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 대한 책임을 군주나 관료만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국민이 걱정하고, 국민의 안위를 국가가 유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국민은 주권을 보유한 정치의 주체이며, 국가는 共產-국민의 공동재산을 관리하는 공정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자유롭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으며, 국가는 이것을 부국강병에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적 생존경쟁에서 적자로 생존할 수 있다.<sup>36)</sup> 여기서 그가 목표로 했던 궁극적 국가 형태가 형식상 국가였음이 드러난다. 이렇듯 이상형 국가가 형식상 국가임에도 1차적인 중요성을 정신적 국가에 부여한 것에서, 그가 국가 문제에 관한 한 장기적 비전보다는 현실적 생존에 더 중요성을 부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 형태의 분류를 통해 그가 의도한 것은, 국민통합과 자강의 근대 민족국가 건설을 순차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었다. 이것을 토대로 제국주의화되어 가고 있는 세계에서 이미 강대국간 경쟁의 중심점이 된 한국의 생존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다.

기존국가의 대안으로서 민족국가의 상을 세안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국가가 내부의 도전과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그는 모색한다. 이 단계에서 신채호는 <國權論>과 <民權論>을 제시했지만, 국가간의 치열한 생존경쟁과 이에 근거한 外競力의 필요 때문에 그는 <민권>보다 <국권>을 더 중시했다. 부국강병만이 외경에서 국가의 생존을 확보해 줄 수 있다고 여겼으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일단 국가를 위해서 통합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인간에게 애국심을 요구했으며, 그 애국심은 국민통합의 수단으로서 부국강병은 물론 국가 자주와 국권 회복의 원천이었다.

35. <身家國 3 관념의 변천>, 「전집」, 별집, p.156.

36. <대한의 희망>, 「전집」, 하, p.67.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한 것도 전제정치 아래서는 애국심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역사도 교육도 문명개화도 국가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앞이나 서나 누우나 국가를 위하여야 하며, 입거나 먹거나 건너라도 국가를 위하여 할 정도였다. 윤효정은 전제정치 아래서는 국민의 애국사상이 생길 수 없으며 애국심의 강약이 바로 국가의 강약이라고 지적했다.<sup>37)</sup> 국가를 목표로, 애국심을 수단으로 한 국민통합은 일종의 국가주의를 강화한다. 이 결과 국가는 모든 것의 목표이고, 모든 것의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한일합방 이후 신채호의 국가관이 그 전형적인 예였다. 그는 우선 국가에 福利되는 것이 도덕의 범위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통하여 국가주의의 일단을 펼쳐 보였다. 이것은 양계초의 공리주의적 도덕 관념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었다. 국가를 위하는 일, 붓을 잡는 일, 칼을 잡는 일이 모두 도덕이며, 심지어 스파르타와 같이 도적을 좋아하는 일 그리고 고대 몽고와 같이 戰殺을 즐김도 도덕이라고 설명했다. 그리하여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국가에 종속되며, 국가는 만물의 가치 기준으로 작동한다. 이로써 민권도 국권에 부합되거나 봉사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게 된다. 윤리, 도덕, 종교, 정치, 습관이 국가의 이해를 기준으로 판단되고, 국민으로서 이 세계에서 생존을 구하려면 없는 시비를 가리지 말고 오직 국가의 이해를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생존은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전체의 생존이므로 국가의 생존에 따라 국민의 생존이 좌우되므로, 국가의 생존은 어떤 것이라도 옳은 것이라고 주장했다.<sup>38)</sup> 또 국민된 자는 애국정신을 분발하여 利國의 사업을 행해야 하며, 국사를 개인의 일보다 우선시켜 국가가 위급할 때 그 몸을 희생하는 것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었다.<sup>39)</sup> 박은식의 경우, 外侮를 당한 시대에는 동포 형제들이 전날의 문호, 봉당, 계급의 분열을 없애고 외모를 공동으로 방어하는 것이 곧 천류이라고 역설하면서 민족의 단합을 호소했다.

그러나 애국심에 의한 국민통합은 부국강병의 첫 단계에 불과했으므로, 그들은 군사력과 경제력의 강화를 역설한다. 세계는 군사세계여서, 서구 강대국들의 강성한 전투력에 대적할 군사력을 키우지 못하면 국가정신, 민족주의, 문명주의가 다 이루어질 수 없다고 신채호는 주장한다. 그가 보기엔 서구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것도, 아시아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들이 서구를 극복할 수 없었던 것도 모두 무력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무력의 증강을 위하여, 병제를 국민개병제로 개편하고 물질문명의 진보와 함께 신병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 말고도 한국이 무력을 증강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것은, 한국이 오랜동안 <文勝武弛>하여 여러 차례의 외침을 당했으므로, 무력을 중시하여 <文>과 <武>의 균형을 이루어야 할 필요였다. 그리고 그는 오늘날의 세계가 또한 경제 분투의 세계이므로, 甲國이 乙國을 대하는 데 경제의 경쟁이 반드시 우선하며, 강국이 약국을 대하는 데 반드시 경제의 장악을 앞세운다는 근거로 경제력 증진의 필요성을

37. <專制國民無愛國思想論>, 「대한자강회월보」, 5.

38. <도덕>, <이해>, 「전집」, 하, pp.141, 146. 가중되는 서구 세력의 침투에 직면하여 지식인들이 망국.멸종의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어, 민족의 보전과 발전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민족주의를 추종하게 된 것은 동아시아 3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일본의 경우에 관해서는 Earle H. Kinmonth, "Nakamura Keiu and Samuel Smiles : A Victorian Confucian and Confucian Victoria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85, No.3 (1980), p.184. 중국의 경우에 관해서는 Benjamin I. Schwartz, *In Search of Wealth and Power : Yen Fu and the West*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1964), pp.19-20 참조.

39. 山雲生, <국민의 의무>, 「서우」, 17, p.23.

역설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경제적 생존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경제력을 증진시켜야 하지만 경제사상의 결여와 경제 능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외국의 발호를 방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을 개탄했다.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경제정책으로 실행할 것을 국민이 대신 실행할 것, 산업의 개량 발달을 실행할 것, 세계와의 무역을 확대하여 세계적 국가의 본능을 발휘하고 세계적 시장에서 이익을 시급히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0)</sup>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는 먼저 국민통합을 이루고 외경력을 갖추어야 했으나, 한국은 양자를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까지 온존시켜 왔다고 그는 분석한다. 이에 따라 그는 국민통합과 외경력의 필요를 국민에게 실득하기 위해 애국계몽운동에 활발히 참여했다. 지식인은 진화적 개혁의 저해 요인으로 여겨지는 권력의 타당성을 부정하고, 권력은 지식인의 개혁 요구를 도전 요인으로 간주하여 소외시켰던 한, 국민에 호소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의 애국계몽사상의 저변에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가 자리잡고 있었고, 양자의 저변에는 애국심이 놓여 있었다. 이에 그는 역사 계몽을 통하여 애국심을 일깨우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기 위한 自强 사상을 이식하기 위하여 역사의 연구와 계몽에 착수했다. 그의 말대로, 상존의 국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탓이었거니와, 거기에는 梁啓超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데 그는 기존의 각종 역사 서술이 민족의식과 국가의식을 육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자신의 역사 서술을 <신역사>라고 일컬어 그것과 구분했다. 역사로서 국가와 애국의 중요성을 그리고 국가와 애국을 위한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그리하여 그는 애국심의 개발을 통한 시한 기종 사관의 비판에 나선다. 우선 그는 尊華史觀이 한국인들에게 자국의 역사는 모르고 중국 역사만 알게 하거나, 혹은 자국 역사를 알아도 주객을 전도시켜 중국을 주인으로 삼는 역사만을 초래했다고 비판한다.<sup>41)</sup> 이 결과 애국심의 개발은 커녕 한국인을 중국의 정신적 노예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박은식의 견해도 이와 유사해서, 존화사관은 자국의 역사 아닌 중국의 역사를 공부하게 함으로써 역사를 노예학문으로 전락시켜 國性을 쇠퇴케 했다고 비판한다.<sup>42)</sup>

물론 외국사의 학습이 그런 폐단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었다. 신채호에 의하면 외국사를 읽음으로써 지피지기가 가능하여 경쟁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애국심을 방조할 수 있을 뿐 주동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에게 역사는 곧 국사-본국사-였다.<sup>43)</sup> 국사야말로 애국심의 제조원이라고 여겨졌으므로 역사는 궁극적으로 정치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에 바탕을 두고 그는 신역사의 저술에 착수했다. 그것은 국민들이 부국강병을 저해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대의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자강의 국가의식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신채호는 <역사란 인류사회의 我와 非我的 투쟁이 시간으로부터 발전하여 공간으로 확대되는 심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아>는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자이며 그 나머지가 <비아>였다. 아는 세 차원에서 파악되는데, 민족적 아, 계급적 아, 개인적 아가 그것이다.

40. <신국민>, 「전집」, 별집, pp.219-225.

41. <독사신론>, 「전집」, 상, p.472.

42. 박은식, <讀 고구려 영락대왕비 등본>, 「박은식 전서」, p.42.

43. <역사와 애국심의 관계>, 「전집」, 하, p.72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消長盛衰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라고 하여, 역사의 주체를 민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역사 과정에서의 주요 투쟁 형태는 아민족과 타민족의 투쟁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투쟁 과정에서 민족이 역사의 생명을 이으려면 투쟁의 승리가 되어야 한다. 그는 투쟁의 승리가 되기 위한 조건을 恒性과 變性으로 설명한다. 항성은 아의 고유한 속성이고 변성은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후천적 속성이다. 그런데 항성이 많고 변성이 적으면 환경에 순응하지 못하고 절멸할 것이며, 변성이 많고 항성이 적으면 優者의 정복을 받고 劣敗할 것이라고 보았다.<sup>44)</sup> 그러므로 역사를 이어 가려면 민족의 고유성 뿐만 아니라 세계사의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성도 갖추도록, 항성과 변성을 적절히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시각을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세계는 진화자의 세계라 규정짓고, 역사의 주체인 민족은 진화하는 세계사의 추세에 따라 스스로 진화하여야만 투쟁의 승리가 되고 민족사를 계승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논리가 도출된다. 그런데 그는 역사 과정에서의 투쟁을 행동이 아닌 정신, 즉 심적 활동의 차원에서 파악한다. 그의 신역사관 진반이 양계초의 <新史學>으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지만, 이 점에서도 양계초의 영향이 확인된다. 아문은 그는 심적 활동의 투쟁에서 승리가 된 아가 역사적 아가 되려면, 시간의 상속성-생명의 부질-과 공간의 보편성-영향의 파급-을 확보하여 사회적 행동으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사관의 바탕 위에서 국권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국사를 조명해 들어간다. 그 첫째 단계에서 그는 영웅사관을 제시했다. 그는 민족사의 영웅-이순신, 최영, 을지문덕, 광개토태왕-과 외국사의 영웅-카불, 가리발디 등-의 예를 들어 위기의 극복을 그와 같은 영웅의 출현에 기대했다.<sup>45)</sup> 둘째, 그는 1910년 이후로는 민족사의 주역을 국민으로 탈바꿈시킨다. 경쟁이 치열한 국제정치에서 국가의 생존은 한 두 명의 영웅보다는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에 의존해야 함을 인식한 뜻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0세기 국민 경쟁의 원동력은 한 두 사람이 아닌 국민 전체에게 있다고 새롭게 인식한 결과였다. 타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강의 국민이 바로 그가 말한 <신국민>이었다.<sup>46)</sup> 그는 신국민에게 정치, 경제, 도덕, 교육, 종교 등 각 분야에서의 인습을 타파하고, 동시에 외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자질을 구비하도록 요구했던 것이다.

인습이야말로 외경에 대한 인식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방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부국강병과 근대 민족국가를 건설하는 데 장애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그는 각종 사회인습의 타파를 주장한다. 우선 가족주의 관념-가족, 가문, 씨족 관념-은 국가 관념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국민들에게 국가를 대가족으로 간주하여 가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국가를 사랑하도록 촉구한다.<sup>47)</sup> 국가유기체론의 영향이 확인되거니와, 이 점에서 그는 일본 및 중국의 사회진화론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는 한국민은 위 아래 할 것 없이 사리를 추구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이 쇠약해지고 국가가 붕괴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한국민에게는 公共心과 公德心-嚴復의 公共精神, 梁啓超의 公德-이 부족하여 상당수의 국민이 개인이 있는 줄은 알지만 사회가

44. <진화와 퇴화>, 「전집」, 별집, p.32 ; <조선상고사>, 「전집」, 상, p.71.

45. <20세기 新東國之英雄>, 「전집」, 하, pp.111-116.

46. <신국민>, 「전집」, 별집, p.44.

47. <국가는 즉 一家族>, 「전집」, 별집, 하, pp.148-149.



있는 줄은 모르며, 가족이 있는 줄은 알지만 국가가 있는 줄은 모른다고 개탄한다. 그 해결책으로 그는 공덕심과 공공심을 일으켜, 국체에 충실하고 공익에 힘써서 동포를 자신과 그리고 국가를 자가와 동일시하라고 촉구했다. 유교의 경우, 문명의 혁신을 방해했고 약자와 패자의 도덕만을 강요하였으며 사덕을 공덕보다 중시하는 폐단이 있었다고 질책한다.

전통적 인습을 비판한 토대 위에서 그는 부국강병과 민족국가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신도덕>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가 말하는 신도덕은 <평등>, <자유>, <정의>, <毅勇>, <공공심>이었는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신국민의 기초였다. 평등과 자유는 국가의식, 단결의식, 외경의식을 저해한 인습들을 타파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그의 자유주의 체계에서 핵심을 이루는 것들이지만, 부국강병에 기여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한계가 있었다. 즉 현실적인 면에서 그에게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의 도구였던 것이다. 정의의 경우, 국민이 정의를 가져야 국가가 존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私利와 미신의 타파를 강조한다. 그는 또 어떤 사상이나 경륜도 毅勇 -엄복의 毅力-이 있어야 실행되고 성공될 수 있는 데도, 한국 국민에게는 의용심이 가장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그는 尙武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武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의협, 忠勇, 強毅, 건인의 정신력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무기조작 기술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sup>48)</sup> 이것이 그가 유일하게 제시한 군사적 강국화의 길이었다. 마지막으로 엄복과 양계초는 서구에는 있지만 중국에는 없는 공공정신이 개인의 에너지를 국가의 부강에 연결시켜 주는 것으로 인지했고, 신채호도 그들의 영향으로 공공심의 발양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기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의 민족주의관은 기존 국가의 모순을 제거한 터전 위에 서구식 근대국가의 像을 이식한 것이었다. 그리고 사회진화론은 이러한 國家像의 정당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었다. 그것은 국제정치적 작동 원리가 경쟁임을, 한국의 부적자성은 거기에 대비하지 않은 결과임을, 적자로의 상승에는 의경의식과 부국강병이 필요함을,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근대 민족국가의 건설로 가능한 것임을 전수시켜 주었다. 한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은 이러한 논리에 동의하고, 적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말하자면 그들은 현재의 부적자성을 인정하고 뒷날의 생존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변화를 촉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현재의 생존경쟁을 우회하여, 미래의 적자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국강병, 즉 실력양성을 추구하게 된다.<sup>49)</sup>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지성이 유리되어 있던 터여서, 그들은 부국강병의 현실적 수단을 결여할 수 밖에 없었고, 또 부국강병을 국가정책에 반영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이런 한계 때문에 그들은 부국강병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민의식의 전환을 모색했다. 이들이 사회 차원의 문화운동에 안주하게 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목표-근대 민족국가의 건설-가 정치적인 것이었음에도, 현실적 한계를 의식하여 그 수단과 과정을 문화에 의존함으로써 이들에게서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sup>50)</sup> 한편

48. <문화와 무력>, 「전집」, 별집, pp.148-149.

49. 구한말의 실력양성론에 관해서는 이송희, “한말 서우학회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 「한국학보」, 26 (1982년), pp.82-86.

50. 이러한 문화주의 내지는 계몽주의에 대한 비판은 노재봉, “계몽주의 비판,” 「사상과 실천」 (복두, 1985), pp.369-379 참조.

강병을 포기하고 부국만이라도 성취해 보려는 인간힘이 경제운동-식산흥업, 물산장려-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 결과, 사회진화론적 개혁사상은 점차 점진론에 빠져들어 실력양성론, 준비론, 자치론, 문화개조론 등에 연결된다. 일제 시대의 안창호, 이광수, 한용운 등이 이 계열에 속하거나, 이들의 사상 한 모퉁이에는 언제나 사회진화론이 자리잡고 있었다.

신채호도 한동안 이런 계열에 속했으나, 1910년 이후 그의 민족주의는 급진적인 방향으로 치달았다. 예를 들어 그는 국가없는 국민의 윤리, 도덕, 가정, 정치, 풍속, 슈관 등이 국가있는 국민들의 그것과 같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즉 그는,

“한 국민이 되어 이 세계에서 생존을 구하려면, 없는 시비를 가리지 말고 오직 이해를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 칼을 가지고 살육을 부름이 우리에게 이롭거든 이대로 하며, 눈을 감고 평화를 찾음이 우리에게 이롭거든 이대로 하며, 윤리, 도덕으로 터를 잡아 전도를 개척함이 우리에게 이롭거든 윤리, 도덕을 힘쓰고, 폭동, 암살로 선봉을 삼아 적의 치안을 혼드는 것이 이롭다 하면 좃으려니와...”<sup>51)</sup>

라고 하여, 국가를 되찾는데 이로운 것이라면 어떤 행동도 불사하는 국민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일 무정부주의로 선회한 이후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요구는 온건한 것이었다. 그가 마르크스주의 및 무정부주의에 접하기 시작한 1910년대부터 그러한 변화는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후로 무정부주의가 차지하는 자리는 넓어진 반면, 사회진화론이 차지하는 자리는 줄어들어 계급이 민족 대신 국가의 주체 자리를 차지하고 국민주권적 자유사회가 국권주의 국가를 대치하는 변모를 보여준다.<sup>52)</sup> 한때 그도 동조했던 각종 진화론적 점진론에 신랄한 비판을 가하는 변모를 보여 주기도 한다. 즉, 자치론에 대해서는 경제 종속하에서의 자치권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고, 문화운동에 대해서는 생존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문화 발전이 불가능한 뿐만 아니라 주어진 한계에 순응하는 것이며, 외교론에 대해서는 민족 독립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임은 물론 주체적 독립운동이 불가능하고, 준비론에 대해서는 외침이 심화될수록 준비의 범위도 확대되는데 그 수단이 없으므로 준비의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그는 지향 민족주의의 고질적 약점이었던 불철저한 반봉건성을 극복하려 했다. 그가 결국 무정부주의에 귀의하게 된 것은, 더욱 난폭해진 제국주의와 무기력해진 민족주의에 대하여 저항을 강화한 결과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3. 사회진화론과 제국주의

사회진화론은 본래 체계가 통일되거나 개념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논자들의 목적에 따라 다의적으로 이용될 소지를 처음부터 안고 있었다. 스펜서 당대에 이미 이런 일이 벌

51. <利害>, 「전집」, 하, pp.146-147.

52. 신일철, 「무정부주의사상」,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고려대 출판부, 1981), p.334.

어졌거니와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것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를 동시에 합리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었다. 제국주의와의 관련에서 보면, 그것은 명백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제국주의국의 팽창을 합리화하는가 하면 동시에 팽창을 당하는 국가의 민족주의를 합리화하기도 했던 것이다.<sup>53)</sup>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었다. 사회진화론의 시각을 빌어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국제정치의 작동 원리로 인정하는 한, 제국주의 국가의 팽창은 강자 또는 적자의 권리로 합리화될 수 있었고, 팽창을 당하는 국가의 민족주의는 생존을 확보하려는 부적자의 경쟁 수단으로 합리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진화론의 논리에 비추어 보면,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제국주의 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에 속한다. 그것으로부터 영향받은 한국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도 대부분 주저함이 없이 이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로 규정하고 있었다. 신채호의 경우, 이 시대를 제국주의 시대로 간주하고 서구 열강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 행각, 그리고 제국주의가 필히 군사주의를 동반한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한다.<sup>54)</sup> 박은식은 이를 구체화시켜, 오늘날은 대포와 거함은 선봉삼아 우매하고 열악한 민족의 소유지를 점탈하는 시대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그런가 하면 한용운도 당대를 우승열패와 생존경쟁이 진리로 통용되고 약탈과 패망이 횡행하는 제국주의 시대라고 규정한다.<sup>55)</sup>

문제는 제국주의의 원인과 그것에 대한 비판이었다. 가치판단을 배제한 채 사회진화론을 국제정치에도 적용하여 기계론적으로 해석하면, 제국주의는 강자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니다. 사회진화론을 국제정치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는 한, 그리하여 강자의 우월과 약자의 열등을 인정하는 한, 나아가서 적자의 생존과 부적자의 제거를 인정하는 한, 제국주의는 약자의 오류이며 책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식의 유사 사회진화론적 논리를 충실히 따른다면 제국주의의 원인은 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약자에게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를 배경으로 조선조 말기의 지성계에서 <帝國主義內因論>이 등장했고, 독립협회의 견해가 그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sup>56)</sup> 그들은 사회진화론의 원리에 비추어 제국주의는 생존경쟁의 표본이라고 간주했다. 따라서 약소국의 피침은 진화 과정의 당연한 귀결이며 약자가 감수해야 할 비극일 뿐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서구 강대국들의 침략은 당연한 원리로 인정될 수 밖에 없었고, 나아가서 그들은 서구의 팽창을 선망하기까지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감적인 차원에서나마 민족의식이 강력한 형태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진화론의 수용으로 말미암아 제국주의에 대한 실천적 대응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진화를 목적론적 진보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시각에서 보면, 서구는 보편문명으로 인정되어 그들의 팽창을 문명이 야만을 개화시킨다는 구실로, 그리고 경쟁 시대의 강자의 권리로 합리화할 수 있었다.<sup>57)</sup> 대한협회의 지도자였던 尹孝定은, 선진 문명국의 지도에 의하여 국사를 정리하고 인문을 정리하며, 지금부터 백성이 문명을 흡수하고 시정을 개선하여

53. 최홍규, 「단재 신채호」(태극출판사, 1979), pp.333-334.

54. <신국민>, 「전집」, 별집, pp.212-213.

55. 안병직, 「만해 한용운의 독립사상」, 「창작과 비평」, 5-4 (1970 겨울), p.770.

56. 주진오, 앞의 논문, p.18.

57. 문일평, <진보의 3계급>, 「태극학보」, 11, pp.7-9 ; 이승근, <세계 문명의 내력을 논함>, 「대한학회월보」, 2.

나라의 부강을 증진하려 한다고 함으로써, 문명은 문명국의 지도로 즉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로 성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방했다.<sup>58)</sup> 인종주의의 시각에서 제국주의를 합리화한 논자도 있었다. 이들은 19세기를 黃白 인종의 경쟁 시대로 규정하고, 이 경쟁에서 황인종이 승리하려면 일본의 지도 아래 황인종이 단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국주의내인론을 완곡하게 시사한다. 그리하여 金光濟는 한국과 일본이 同門同種이므로 문명부강의 영역에 이르도록 서로 권장하고 이끌어 서세동점하는 患은, 협력하여 방어하라고 제의한 바 있다.

제국주의에 대해서 처음부터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신채호나 박은식의 민족주의사상에서도 제국주의내인론이 도출될 수 있다. 이 점은 이 시대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제국주의의 팽창에 대응하여 민족주의의 필요성을 도출함으로써 민족주의는 대항 이데올로기로서의 심격을 갖게 된다. 그 민족주의가 요구한 부국강병이 시종 서구나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국강병에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우월국가의 팽창을 지지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박은식은 제국주의를 일컬어 말은 보살처럼 하면서 행동은 夜叉처럼 한다고 비판하면서도 생존경쟁은 진화의 원리이며 우승열패는 공례이므로 국가 경쟁 시대의 승리 조건은 강자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sup>59)</sup> 강자가 되어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사회진화론의 기본 원리라면, 제국주의에 대한 책임은 강자가 되지 못한 약자에게 넘겨질 수 밖에 없다. 신채호의 경우도,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으로 국권이 박탈당하고 식민지로 병탄당할 위험에 경고신호를 보낸 바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의 과제와 목적지는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아내어 국권 회복, 독립, 자유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표시했었다.<sup>60)</sup> 따라서 애국계몽운동 내부의 교육구국운동, 실업구국운동, 단체조직운동, 사회개혁운동은 목적과 수단을 전도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불가분의 짓임을 설명하고 있다. 즉, 제국주의는 민족주의의 한 형태로서 민족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것이며, 민족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길이다. 바꾸어 말하면, 우승열패의 경쟁 과정에서 패배하지 않으려고 민족이 단결하여 항쟁하는 것도 민족주의라고 한다. 결국 민족주의는 타민족의 간섭을 불허하는 것이고 제국주의는 민족주의가 박약한 국가에만 침입하는 것이다.<sup>61)</sup> 따라서 민족주의가 강건하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제국주의의 침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민족주의가 병약하다면 제국주의의 침입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보면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제국주의내인론은, 첫째, 부국강병을 먼저 이룬 국가의 우월성을 당연시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을 불가능하게 한다. 둘째, 우월국가의 팽창을 합리화하여 모든 국가의 팽창 경향을 합리화할 수도 있다. 셋째,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이 봉쇄됨으로써 선발부강국의 제국주의화를 조태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제국주의는 보호의 미명 아래 영토를 탈취하고 평화의 가면 아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仁義가 결여된 단순한 強權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

58. <대한협회의 본령>, 『대한협회회보』, 1, p.47.

59. 박은식, <自強能否의 문답>, 『대한사상회원보』, 4, p.1.

60. <금일 대한제국의 목적지>, 『전집』, 별집, p.177. 사회진화론에 의존한 결과, 구한말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조차도 강자의 지배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진덕규, “한국 민족주의의 정치이데올로기적 인식”, 『현대 이데올로기의 세문제』 (민음사, 1982), p.261.

61. 신채호, <제국주의와 민족주의>, 『전집』, 하, pp.108-109.

면에서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판은 1920년 이후의 신채호로부터 나온다. 그는 일본의 강권을 적으로 규정하고 일체의 협상이나 청원의 여지를 배제하는 한편, 반강권주의 투쟁을 역설했던 것이다.<sup>62)</sup> 이러한 시각에서 그는 제국주의의 원인을 국내에서 찾고, 그 해결책도 국내에서 구하려고 했던 각종 점진론-자치론, 문화운동론, 준비론 등-을 신랄히 비판한다.

## V. 맺는말

구한말의 사회진화론 수용과 그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사상이 출처를 떠나 전파되는 과정에서 피전파자의 정치환경-객관적 조건-과 그의 임의 또는 기호-주관적 조건-에 따라 굴절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 준다. 그리하여 그 본질은 외면되고 형식만이 수용될 수 있는 것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 사상이 본래 그것을 생산한 정치 세력의 의도와 상호작용하는 정치환경의 산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일단 전파 과정에 들어서면 상이한 환경에서 상이한 정치 세력의 의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용되는 것이 상례이기도 하다.<sup>63)</sup> 사회진화론이 그 출처인 영국 또는 구미 세계에서 담당했던 역사적 역할을 박탈당한 채 구한말 정치의 변화에 대응한 지식인의 필요에 맞추어 수용된 것도, 다시 말하자면 歐美 중산층의 자유주의적 정치사상을 대변하던 그것이 당시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 의하여 救國의 정치사상으로 수용된 것도 그런 맥락에서였다.

사상의 그러한 굴절은 진화론이 사회진화론으로 전화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생존경쟁과 자연도태-또는 적자생존-의 원리를 중심으로 생물의 형성과 변화 방식을 설명하던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회진화론자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재조립되는 것이다. 다윈은 생물의 진화 과정을 우발적인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한 목적론적 진화론에 그리고 모든 존재의 생성과 변화를 신의 섭리로 파악하는 기독교의 창조설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반면 스펜서는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사회에 적용함으로써 국가 내부에서의 자유주의의 정당성과 진보의 불가피성을 합리화한 대조를 보인다. 그러나 스펜서의 자유주의적 사회진화론 또한 대중의 민족주의적 성향 고양, 서구 제국의 제국주의적 팽창, 집단주의의 대두를 계기로<sup>64)</sup> 대내적 국민통합과 대외적 경쟁을 강조하는 유사 사회진화론으로 대치된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 사회유기체론을, 대외적으로 경쟁적 國際政治像을 합리화하는 社會帝國主義論(social imperialism)이 사회진화론 계열의 주류로 부상하는 것이다.

서구 제국주의의 東漸에 수반된 제반 서구사상, 특히 사회진화론의 전파는 신채호를 비롯한 구한말의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에게 위기의식의 촉진제이자 이완제로 작용한다. 동아시아까지도 지배 영역으로 포섭한 서구적 국제정치질서가 강력에 기초한 것으로 파악되

62. 신채호, <조선혁명선언>, 「전집」, 하, pp.35-46.

63. Earl H. Kimmonth, *art.cit.*, p.555; 家永三郎, “日本思想史における 外來思想の 受容の問題,” 武田清子 編, 「思想史の方法と對象」(創文社, 1961), pp.201-208

64. Wolfgang J. Mommsen, *Theories of Imperialism* (New York : Random House, 1980), p.72; 세이빈 슐른 지, 성유보·차남희 역, 「정치사상사 2」(한길사, 1984), pp.908-909.

고, 強力을 수단으로 한 국가간 생존경쟁이 사회진화론에 의하여 국제정치질서의 작동원리로 합리화되고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강력정치적 국제정치상을 수용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구한말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스펜서의 그것과는 다르게 국가를 경쟁의 단위로 규정하고, 강력의 우열을 준거로 서구의 우월과 동아시아의 열위를 서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론적 도구로 변형된다. 서구 세력의 팽창에서 비롯된 위기가 강력의 가치를 환기시켰으나, 그것의 부재로 야기된 위기의식이 내정개혁 구상의 계기를 이루게 되고, 개혁이 국가간 경쟁에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스펜서류의 사회진화론은 국내정치사상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고 국제정치사상으로서 이들에게 수용된다. 그리하여 전통질서의 모순이 초래한 내면적 위기보다 서구의 충격이 야기한 외면적 위기를 중시하고 그것에 대처하는 데 주력하게 하고, 서구의 연쇄적 충격이 시민의 자유와 국가간 경쟁의 중요성을 일깨우되 진자의 후자에 대한 수단적 효용을 터득하게 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신채호의 근대 민족주의상이 저항형과 시민형으로 분열하면서도 저항형에 주조가 두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더구나 국가 생존을 위한 대외 저항의 전제로 대내적 통합의 선행이 요구된 터여서, <內安外競論>이 국가구성원간의 경쟁을 제약하고 국가간의 그것을 고무한, 그리하여 스펜서류의 사회진화론과는 본질을 달리한 社會帝國主義論<sup>65)</sup> 사회진화론의 주류로 수용케 한다. 이러한 시각의 외연에서 그는 서구의 帝國主義를 強力の 확충에 입각한 민족주의 진화 과정의 산물로 파악했다. 그는 국가 전복, 영토 분할, 국권 상실의 위기가 제국주의적 팽창의 필연적 산물임을 간파하면서도, 強力-즉 外競力-의 결여를 초래한 자국의 입헌 정치제도 불비, 자치 능력의 결여, 정치적 자유와 인민주권의 부재를 제국주의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런데 그의 위기의식이 西勢의 東漸 현상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즉 동서간의 불평등한 역관계에 기원을 둔 것임에도, 그러한 불평등 관계의 원인을 전통적 국내정치에서 발굴하려 함으로써 <帝國主義內因論>이 초래된다.

그리하여 제국주의의 원인 규명과 그 대응전략이 개혁지향적 지식인들의 국가사상 전반을 지배함으로써, 自強의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外競用 내정개혁 요구가 국가사상의 주조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대외적 위기와 저항의 요구를 근대 민족주의의 내면화 계기로 포착한 터에, 제국주의의 연쇄적 위협마저 덧붙여져 위기의식이 가중될 수 밖에 없었다. 이로써, 이들은 국가간 생존경쟁에서 적자의 생존을 강조하기보다는 부적자의 도태를 회피하려는 정치전략의 개발에 주력한다. 사회진화론이 현실의 국가간 생존경쟁에서 열세를 시인하되, 미래의 그것에서 적자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구된 실력양성론을 뒷받침하게 된 것은 이런 연유에서였다. 서구 제국주의의 팽창에 동반된 부적자 제거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근대 민족주의의 가치를 간파하게 된 점에서 이들의 국가사상은 공통성을 드러내고 있다.

65. 사회제국주의에 관해서는 Bernard Semmel, *Imperialism and Social Reform : English Social-Imperial Thought, 1895-1914* (London, 1960) ; 이에 대한 비판은 D. P. Crook, *Benjamin Kidd : Portrait of a Social Darwinist*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84) 참조.